논어 9편 자한 31장 · 원문·풀이

「唐棣之華，偏其反而；豈不爾思？室是遠而」。子曰：「未之思也，夫何遠之有？」

독음 · 당체지화 편기반이 기불이사 실시원이 자왈 미지사야 부하원지유

쉬운 풀이(요약) · 그리운 이가 멀어서 만나지 못한다는 시에 공자는 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 진심이라면 거리가 무슨 문제냐고 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唐 당나라 당 당 / 棣 산앵두나무 체 체 / 之 갈 지 / 華 꽃 화 화

偏 치우칠 편 편 / 其 그 기 / 反 돌이킬 반 반 / 而 말이을 이

豈 어찌 기 기 / 不 아닐 불 / 爾 너 이 이 / 思 생각할 사 사

室 집 실 실 / 是 이 시 시 / 遠 멀 원 / 子 아들 자

曰 가로 왈 / 未 아닐 미 미 / 也 어조사 야 / 夫 지아비 부 부

何 어찌 하 하 / 有 있을 유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